

하나됨과 나눔

“ 사랑,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

< 베드로전서 4장 8-9절 >

- 다음 주일은 각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을 축하하며 감사예배로 드립니다.
- 공동체학교 연합 졸업식이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이지성 목사님 가정이 8일(수) 입국하였습니다.
- 김원준 집사님 가정에서 8일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 공동체운영위원회 34차 정기회의가 오늘 오후 2시에 모입니다.
- 멧쟁이학교 학부모 총회가 18일(토) 오후 6시에 모입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최기찬 전도사 · 노미현 사모 가정 (졸업 감사)
석용범 · 박영선 집사 가정 (지인·지원 졸업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석용범 · 박영선 집사 가정 (생일 감사)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0 - 7 호

2023년 2월 12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따뜻한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이학교 6학년 졸업생들과 함께 졸업여행을 다녀왔습니다. 2018년 2월 이후로 대략 4년만에 다녀왔습니다. 어린이학교의 졸업여행은 그 해의 6학년 졸업생들이 5개월전쯤부터 지역을 의논하고 결정하여 준비합니다. 가고싶은 곳은 많으나 결국 재정과 날짜를 고려하여 동남아시아로 결정하며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주변의 1~2개 정도의 국가나 도시를 여행합니다. 이번 여행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말라카와 조호바루, 2개국 3개 도시를 13일간 여행했습니다. 매년 가는 졸업여행이다 보니 싱가포르를 10번이상은 다녀와서 누구에게라도 안내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오랜만에 가다보니 설렘과 함께 걱정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춰진 시간이 지나고 워드코로나 정책이 시작되고 각국의 국경문이 열리면서 사람들은 여행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해졌습니다. 작년 4월경 조사된 한 항공사의 설문에 의하면 응답자의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코로나가 끝나면 1년내에 해외여행을 다녀올 것이라고 답했고 추운 겨울 어린 자녀들의 방학을 맞아 해외에서 한 달살기, 일 년살기의 열풍은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사랑방공동체학교는 여행을 많이 하는 학교로도 유명합니다. 사랑방공동체학교의 여행은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통해 얻는 쉼과 충전의 시간 외에 다양한 경험과 공동생활을 경험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같이 살며 나의 삶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곳을 가느냐의 장소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또 다른 삶의 장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싱가포르를 매년 가는데 지겹지 않냐고 물으십니다. 그러나 갈 때마다 함께 가는 학생들, 또 선생님들이 바뀌니 저의 여행의 장은 매년 새롭습니다. 싱가포르의 남쪽, 센토사섬에 실로소라는 해변이 있습니다. 졸업여행을 올 때마다 들렸던 그 해변의 모래사장을 걸으니 그 동안 함께 걸었던 많은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누구는 무슨 말을 했고, 또 누구는 어떤 옷을 입었고, 또 그 날의 날씨는 어땠고.. 어린이학교에서 졸업여행을 준비할 때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행복한 기억을 갖게 하자"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합니다. 사랑 받았던 경험,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 사람은 후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기억을 토대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인데 그런 경험과 행복은 졸업생들만 받았던 것은 아니었음을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비교적 긴 여행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잠시 여행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여행의 장은 대한민국도, 무림리도 아닌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서로에게 따뜻한 기억, 평생 잊을 수 없는 행복한 기억을 남겨주는 매일의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활공동체 디아코니아사랑방 정다운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 주신다. ”
< 시편 4편 3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68 524 / 96

기도 : 이윤순 집사

성경 : 요한복음 11장 28~44절

제목 :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님

1. 내용: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나사로를 살리시다. (What)
<문단구분>
28절~37절 예수께서 마리아를 만나 무덤으로 가시다
38절~44절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서 나오다
2. 의미: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Why)
 - 1) 인간에게 주어진 죽음을 극복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 2) 생명을 함부로 다루면, 인간에 대한 존중을 잃어버린다.
 - 3) 생명의 수여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3. 적용: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을 누리며 참 자유 안에 거하자. (How)
 - 1) 우리는 죽을 수 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다.
 - 2) 불신앙의 돌을 치우고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확신에 거하자.
 - 3)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자.

졸업여행과 예배

2019년 이후 4년 만에 어린이학교 졸업여행을 해외로 다녀왔습니다. 지난주 주보에서 여행 근황을 전했던 재효, 은찬이, 하린이와 5명의 교사들이 이 여정을 함께 하였는데요. 1월 28일 토요일에 출발해서 2월 9일 목요일에 돌아왔고,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말라카와 조호바루, 이렇게 세 곳을 다니고 왔습니다. 돌아올 때 비행기에서 하룻밤 잔 것을 포함하면 12박 13일의 꽤 긴 일정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어찌다 보니 두 번의 주일을 여행지에서 보내었습니다.

첫 번째 주일은 싱가포르에 도착한 바로 다음 날이었는데, 현지 교회에 가지 않고 특별하게 우리끼리의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소는 '보타닉가든'이라는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식물원 속 어느 한 지점 있었는데, 마침 석 달째 싱가포르 출장 중인 박태규 집사님을 만나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권재만 목사님의 인도로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말씀도 듣고, 두세 명끼리 소그룹을 만들어 삶도 나누었던 우리끼리의 그 예배는 잔잔하고 정겹고 또 평화로웠습니다.

두 번째 주일은 말라카의 숙소에서 사랑방공동체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숙소에 있는 TV 모니터를 잘 보기 위해서 자리를 정돈한 후에 예배 순서를 따라서 앉았다가 일어서기도 하면서 정돈된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였습니다. 찬양 시간 화면 속에 가족들이 보이면 반가운 마음에 눈이 커지기도 했고, 정재훈 목사님께서 어린이학교 졸업여행과 학교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주실 때는 울컥한 마음에 슬쩍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여행을 끝낸 지 며칠 안 된 지금은 '여행만큼 좋은 공부도 없다'는 말도, '집 나가면 고생이다'라는 말도 무척 실감 납니다. 어린이 졸업생들은 이번 여행을 통해 쑥 컸고, 교사들은 각자의 역할과 몫을 다하기 위해 여행 내내 열심히 분투했습니다. 이런 여정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방향을 다잡아준 시간이 두 번의 예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여기저기 다니다가 구글 맵을 켜서 현재 위치를 파악해보는 순간처럼 말이죠.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히브리서 10 : 19, 22 인도자
15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누가복음 15 : 7 인도자
335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시편 4:1 - 8 설교자
218 사랑방
“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 ” 권재만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449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주님의 사랑이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오영옥 홍정길/ 봉헌위원 : 채영학/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솔 석지인 옥대철

예 배

언제나 저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공동기도문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

환한 얼굴로 비춰주시는 것. 시편 4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 마음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평안함을 누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고 헛된 일들에 관심을 두며 거짓된 것을 신으로 섬깁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그의 모든 일에 있어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는 주님 안에 안정감이 있기에 감정적 동요가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려 그것을 잘 해결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오류에 대해 인정하며 고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는 정의롭고 인자하여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가져옵니다.

우리들이 가꾸어야 할 삶. 우리 모두는 각자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참된 행복은 짧은 순간의 기쁨이나 쾌락과는 다릅니다. 행복한 삶이란 확신에 찬 삶과 그 안에서 누리는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 삶을 얻는 방법은 주님께 헌신하며 그분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온전히 누리는 사랑방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이재신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긴 겨울방학을 지나고 드디어 개학을 했습니다. 방학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사진을 가져와서 서로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을 가졌는데 꾸러기 넷 다 사진을 보며 재잘재잘 이야기보따리를 신나게 풀어놓는 것을 보니 방학 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방학도 즐거웠고 개학을 한 것도 신난다는 꾸러기들의 말을 들으니 다행스럽고 감사했습니다.

수요일 오후에는 고모호수공원으로 산책을 하러 갔습니다. 5살 때도 왔고 6살 때도 왔던 호수공원인데 7살이 되니 정말 잘 걸었습니다. 한 바퀴를 빙 도는 동안 다리 아프다는 소리를 아무도 안했습니다. 짜증을 내지도 않았습니 다. '많이 컸구나!' 싶어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금요일 오후에는 공동체 마당에서 불을 피우고 쥐포, 소시지, 옥수수, 마시멜로, 고구마를 구워먹었습니다. 마당을 지나는 목사님, 전도사님, 집사님, 어린이들, 멧쟁이들을 불러 함께 나누어먹었습니다. 매콤한 연기를 피하느라 자리를 옮겨가며 마시멜로 하얀 가루를 입가에 문힌 채 열심히 먹는 서로의 모습을 보는 것이 재미있고 즐거웠습니다. 차가운 공기에 코끝이 좀 시려도 옹기종기 불가에 서서 맛있는 것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 교사 : 전향옥 >

어린이학교

어린이학교 6학년들이 졸업여행을 안전하고도 뜻깊게 다녀왔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여행이지만 가고 싶은 곳도 스스로 정하고 가는 법과 그곳의 의미도 직접 알아보며 다녀온 여행이었습니다. 글로 익

배움과 가르침

혔지만,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아 일일이 물어보고 찾아가며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여행 중에 생긴 소소한 갈등들과 어려움들을 거치며 더욱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해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는 어린이학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편입생 부모님들과 새롭게 임원을 맡게 된 부모님들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시간표와 한 해의 일정들을 궁금해하며 집에서 기다리는 아이들이 눈앞에 선합니다. 앞으로 새롭게 시작할 학교생활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교사 : 권재만 >

멧쟁이학교

꿀 같았던 겨울 방학을 보내고, 봄 학기로 다시 만났습니다. 순간의 어색함도 잠시뿐 등교 후 첫날밤 각 방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 다.

여행과 다양한 경험을 통한 학습이 주가 되는 1, 2학기와 다르게 봄 학기는 검정고시 준비 등 학업에 집중된 시간을 보냅니다. 이번 봄 학기엔 정태일 교장 선생님께서 특강을 해주십니다. 지난주엔 공동체 이야기, 이번 주엔 공동체 성서 연구에 관한 강의를 해주십니다. 또한 2023년 1학기 해외 문화체험 학습을 앞둔 멧쟁이들은 외국어 공부와 계획을 세우며 준비 시간을 갖습니다.

멧쟁이들의 온기로 겨우내 얼었던 공동체 마당이 녹아내립니다. 초콜릿 진흙땅이 되어 걸을 때마다 불편하지만, 아무렴 함께해서 즐거운 멧쟁이 학교입니다.

< 교사 : 장성아 >

봄. 봄. 봄. 봄이 왔어요

악~~~~

아무런 대비도 없이 무심코 신고 나간 하얀 운동화에 공동체 마당 가득한 초콜렛이 잔뜩 묻었을 때 나오는 비명 소리입니다.

아무리 '저건 초콜릿이다. 저건 초콜릿이다' 주문을 외워봐도 슬리퍼의 빈 곳을 비집고 들어오는 진흙이 결코 초콜릿처럼 달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맘때가 되면 공동체 땅은 얼었던 몸을 부드럽게 풀고 그 어떤 것보다 제일 먼저 봄이 왔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결코 달콤하지는 않지만, 웃는 얼굴로 반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봄이 왔다는 소식은 바람의 냄새 속에도 있고, 햇살의 따스함 속에도 있습니다. 공기의 느낌이 달라지고, 아이들의 옷차림이 달라집니다. 벌써 반팔로 다니는 열혈남아들도 등장했습니다.

유독 길고 추운 무림리의 겨울이 끝나간다는 이 증거들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온도에도 영향을 주어 가슴에도 봄이 피어나게 합니다.

이제는 삼삼오오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눌 수 있고 꾸러기들은 모닥불로 구워 먹기를 하며, '전두사님 이거 드세요'라며 입에 쥐포를 넣어줍니다.

주변 분들은 따뜻하게 대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려 맛있는 밥과 차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가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진으로 고생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기도를 드리고 구호 물품을 모아 보내자는 봄 같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분명 이 마음들이 추운 겨울보다 더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스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봄.봄.봄. 봄이 왔습니다. 사랑방 모든 식구들의 마음에 더욱 따사로운 봄기운이 가득가득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생활공동체 디아코니아사랑방 장영미 전도사

함께사는 이야기

<수요 정오기도회>

인도 : 이어진 전도사

찬송 : 289, 365, 412

성경 : 마태복음 6:25-34

말씀 : 근심과 걱정

중보기도 :

1.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터키-시리아 대지진의 피해자들을 위해>
화요일까지 밝혀진 사망자만 7천8백명 이상. 이재민 2천3백만 명. 새벽에 일어난 첫 지진과, 이후 연속된 여진으로 피해자들이 매우 많아지고 있다. 마을 50개 이상이 완전히 파괴되는 등의 후속피해가 지금도 잇따르고 있다.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오두막 공동체>
 - 1) 마을 공동체에 기쁨과 화목함이 가득하도록
 - 2) 진행되는 사역들이 형통하도록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 1) 환절기에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
 - 2) 어린이학교 여행 마무리까지 인도하시도록
 - 3) 졸업 시즌에 학습과정을 마무리 하는 사람들을 위해.

<생활공동체 소식 >

그간 조용했던 공동체가 시끌시끌하니 학생들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꾸러기와 멧쟁이가 봄 학기 개학을 하면서 생활공동체 식구들도 덩달아 분주해진 한 주였습니다.

멧쟁이들의 하루 세 번 식사와 간식을 챙겨주시는 베다니하늘주방 식구들께서는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를 많이 써주시고 계십니다. 생활공동체 식구들도 돌아가며 저녁 식사를 준비해주셨습니다.

활기가 넘치는 한 주간, 공동체 마당에도 이 활기와 함께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